

# 믿음을 보겠느냐?

Shall I Find Faith?

누가복음 18:1-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0월 21일 설교

<sup>1</sup>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sup>2</sup>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sup>3</sup>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sup>4</sup>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sup>5</sup>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sup>6</sup>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sup>7</sup>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sup>8</sup>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 어떤 재판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 부릅니다. 비유가 뭐니까? 비유는 현실하고 비슷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허구지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로 만들어 그 이야기를 통해 현실에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게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어 내신 이야기입니다.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났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싸울 때는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가려주고, 혹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억누른 경우라면 그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게 재판관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원문을 보면 비유의 첫 낱말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어떤 도시에 있었는데……” 그러니 시작부터 어떤 싸움 아니면 어떤 억울한 사정, 그런 걸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관은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재판관의 결정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도 무시했습니다. 별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사람도 당연히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없으니 모든 건 제 마음이지요. 시작부터 안 좋습니다.

## 억울한 과부

두 번째 등장인물은 과부입니다. 말 그대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는 여자입니다. 고아와 더불어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였습니다. 남자가 모든 걸 주도하던 시대에 지켜줄 남편이 없으니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경쟁에서 늘 남에게 밀리고 속거나 빼앗기는 일도 허다하고 희롱이나 무시도 당하며 사는 게 과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 했는데 여기서 원수는 재판에서 나랑 맞서는 상대를 가리킵니다. 여인이 소송을 걸었다면 그 소송의 피고인을 말하겠지요. 억울한 일이 있어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관이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얼른 좀 처리해 달라고 거듭 간청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지저분한 소송이 하도 많아서 소송을 걸었다 하니 느낌이 그다지 안 좋습니다만 힘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여인으로서 법에 호소하는 이게 써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모양입니다.

계속 가 즐랐으니 참 적극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사정이었다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손해 조금 났다고 당장 소송 걸고 안 그랬습니다. 과부 형편에 억울한 일을 한 두 번 겪었겠습니까? 이렇게 재판관을 거듭 찾아가면 도저히 덮어둘 수 없는 사정이요 절대 그냥 둘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난 힘없는 과부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콧방귀도 안 뀌니다. 내가 돈이 있습니까, 뺨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찾아가 조르는 것뿐입니다. 그저께도 찾아가고 어제도 찾아가고 오늘도 찾아가 부탁드립니다.

## 도시의 형편

이야기의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셨습니다. 마을이 아니고 도시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시골에 비해 정도 없고 서로 잘 모르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 도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도시를 처음 만든 사람이 가인입니다 (창 4:17).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이 세상, 특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축소판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는 재판관이 꼭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억울한 과부도 있습니다.

도시라서 억울한 일도 생기고 도시라서 재판관도 필요한데 이 재판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의 재판관이라서 그렇습니다. 과부가 거듭 찾아와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억울한 사정을 당장 풀어주어야 할 사람이 얼마 동안,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듣지 아니하다가” 했는데 원문은 “하기 싫었다”는 말입니다. 과부의 그 애절한 간청을 들어주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언제나 내가 기준인데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니 싫었던 거지요.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두지 않더니 결국 불공평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세상은 처음부터 고르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 안 해도 세상은 불평등, 불공평으로 가득합니다. 타고나는 것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힘이냐 돈이냐 지식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사이의 편차가 아주 큼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은 무시당해도 큰 손해를 안 봅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되니까요. 없는 사람, 본문에 나오는 과부 같은 사람은 그냥 당합니다. 가득이나 없는데 그것마저 빼앗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둔 게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이 하나님도 사람도 다 무시하니 불공평한 세상이 이제는 억울하고 원통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 뜻밖의 결정

그런데 이 재판관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꼭 하나,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관 본인도 압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이 뭐라 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데, 아 이 과부가 얼마나 성가시게 구는지 귀찮아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자,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한다 했지요? 제가 귀찮으니까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들 있었겠습니까? 그저 귀찮아서, 이 세상 천지에서 오직 나 하나만 소중한데 아, 이 소중한 나를 날마다 들볶으니 그걸 피하기 위해 얼른 해결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들어주는 게 좋겠다 한 재판관의 판단에서 우리는 여인이 얼마나 끈질기게 달라붙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계산부터 했지요? 뭘 계산했습니까? 어느 쪽이 덜 귀찮을까 하는 겁니다. 과부의 사정을 풀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쉬었다면 금방 들어주고 말았겠지요. 그래서 재판관이 만약 ‘이 과부가 조금 이리다 말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아마 끝까지 안 들어 주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무시하면 제품에 꺾일 건데 뭐 하러 귀찮게 수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독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저 몇 번 부탁해 보다가 포기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만약 안 들어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는데, “끝까지 나를 못살게 굴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 끝이 뭇지는 모릅니다. 과부가 죽는 날이 끝일 수도 있고 내가 죽어도 끝이 나겠지요. 두 사람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재판관이 판단해볼 때 죽는 날까지 들들 볶이는 것보다는 지금 나서서 해결해주는 쪽이 덜 귀찮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 두 재판관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과부의 호소를 무시해 오던 재판관이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 비유를 우리 생활에 바로 적용하십니다. 주님은 ‘재판관이 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뭘니까?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들볶여 못 살겠다’ 한 말입니다.

그러시곤 곧바로 그 재판관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재판관이 하나님하고 어떤 점에서 같습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을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재판관은 마음만 먹으면 억울한 일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재판관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뭐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의 차이는 일단 제외하고 가장 먼저 의롭고 불의한 점이 다릅니다.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은 예수님 표현 그대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왜 불의합니까? 의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 억울한 일, 의롭지 못한 일, 공평하지 못한 것, 이런 걸 바로잡으라고 있는 게 재판관인데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약자 중의 약자인 과부가 억울한 일 좀 해결해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와서 간청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무시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들어주기로 마음을 바꾸었지만 그 또한 사람이 의로워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내가 더러워서 들어주고 만다’ 하는 식이었지요.

##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그럼,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에 비할 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의한 재판관도 이 정도라면 하물며 하나님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십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나쁜 재판관 가운데서도 특히 못된 이 재판관도 자꾸 보채니 들어주었는데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끈질긴 간청을 왜 안 들어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은 그럼 누구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 했는데 “밤낮 부르짖는”이라는 구절을 빼면 “그의 택하신 자들” 곧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하고 그 재판관의 다른 점이 또 나옵니다. 재판관은 과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과부가” 하고 말하는 걸 박서는 재판 전에는 서로 몰랐던 사이 같습니다. 그러니 무시해 버렸겠지요. 그런데 우리 재판관, 우리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는 분은 우리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얼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름도 아시고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하나 택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된 재판관이, 아무 연줄도 없는 사람, 아무 힘도 없는 과부의 간청을, 귀찮다는 이유 하나로 들어주었다면, 우리를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주를 의롭게 창조하시고 또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오늘도 거둬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억울한 사정을 왜 안 들어 주시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 부르짖는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는 그럼 누구니까? 우리는 이 과부하고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점이 같습니다. 우리는 다 도시 사람입니다. 웨스트체스터 한적한 시골에 살아도 우리 사는 곳,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죄로 덮인 도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도시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데 도시는 예수를 싫어하니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 15:18-19).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딤후 3:12). 왜 핍박을 받습니까? 왜 미움을 받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당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걸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혈과 육의 싸움을 걸어온다고 나도 혈과 육으로 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의 싸움은 참는 겁니다. 당해도 되잖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영의 싸움입니다 (롬 12:19-21). 그러니 내가 당한 것, 터지고 깨지고 찢긴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밖에 뭐가 또 있겠습니까?

억울한 점도 같고 가만있을 수 없다는 점도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택하심을 받은 결과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과부의 억울한 사정이 뭔지 주님은 일부러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모든 게 거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도 뭔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이라는 것, 부당하게 겪는 일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겪는 모든 답답한 일, 아픈 일이 여기 포함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약속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도, 또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가장 힘주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우리 억울한 사정을, 반드시 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 세 번 거꾸 말씀하십니다. 두 번은 수사의문문으로 마지막 한 번은 분명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희 억울한 일을 즉각 풀어 주실 것이다.”

세 번 거꾸 말씀하셨으니 최상급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번 거꾸 말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거룩, 거룩, 거룩 세 번이면 됩니다. 이보다 강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오래 안 기다리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비겨 가르쳐 주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곧 밤낮 부르짖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것을 나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남보다 더 쉽게 더 많이 누리게 해 달라는 그런 탐욕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입니다. 아프고 답답하지만 이 좁은 길만이 생명인 줄 알기에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다투고 고백한 것처럼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낙망치 말라,” 다시 말해 약해지지 말라, 쓰러지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고 권고하십니다.

## 우리의 믿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지요. 경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경험은 힘이 못 됩니다. 믿음이라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부르면 절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히 11:6).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시는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아주 두꺼운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결론이 참 우물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믿음이 희귀해질 거라는 말씀이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원한을 속히 풀어줄 거라 하셨는데 그 ‘속히’가 내가 경험으로 느끼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건데 그 날이 금방 오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씩 둘씩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얼마 남지 않을 거라는 뜻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조국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도 과부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답답해 터질 것 같던 가슴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일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해결해 주신 건 감사헌금 드릴 틈도 없이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걸 다시 늘어놓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열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는 게 더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해결 못 할 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 이어 주신 말씀입니다. 해결을 못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자다가 일어나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개인이 겪은 억울한 일, 내가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아니면 부모나 배우자 때문에, 돈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하여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겪어야 했던 또 지금도 겪어야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 사랑의 하나님

자다가 깰 정도로 거창한 게 아니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겪는 지극히 작은 아픔 하나도 크게 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복과 생명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리 들어올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오늘도 굳게 믿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험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절대 믿음의 끈, 소망의 줄, 사랑의 띠를 놓지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속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수시로 함께 보고 또 마지막 날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

(함께 기도)

1.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2. 지금까지 하나님이 풀어주신 내 억울한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한 자신 회개하고,
3. 이 약한 믿음 더욱 굳세게 해 주셔서 끝까지 든든히 서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